

나주혁신도시 주민 2명중 1명 “떠나고 싶었던 적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문화여가 불만족 81.4%·의료 72.7%·교육여건 58.4%
총 만족도 44.7...시급과제 의료·교육·도로교통·공원 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도시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한 때 나주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변변찮아 살기 힘든 탓이다. 특히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이 크고, 기존 광주와 나주 지역민보다는 새롭게 동지를 튼 이천 공공기관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고, 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연구에 게재된 김현철 책임연구원의 ‘빛가람혁신도시 교육발전 과제 및 협력 방안’에 따르면 빛가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광주전남연구원 지난해 11월 빛가람동 주민 2만6671명 중 표본수 1113명(기존 주민 588명, 이전기관 직원 525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대면 및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87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 조사, 조사대상자 중

55.1% 혁신도시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다 응답. 특히 교육여건 불만족 58.4%, 주변 지인에게 혁신도시 이주를 권한다는 응답도 19.4%에 그쳤다.

정주여건 불만족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가족을 얼마나 데려왔는지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직원의 거주하는 인원 수는 1명이 35.8%였으며 2명 14.6%, 3명 29.6%, 4명 17.3%로 나타났다. 또 이전기관 거주 가족 수는 혼자 44.3%로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는 26.1%에 그쳤다.

향후 가족 전체가 이사할 의향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64.4%에 달했고, 무응답(20.3%)도 많았다. 가족을 데리고 오겠다는 답변은 15.3%에 그쳤고, 가족 이주

의사가 있는 주민 중 33.0%는 빛가람동이 비교적 정비될 것으로 보이는 3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정주여건 나쁜 이유 중 편의시설 부족을 손꼽았다. 편의시설에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은 38.2%였고 매우 불만족도 23.4%에 달했다.

이 중 문화여가시설(스포츠, 영화, 도서관) 불만족 39.4%, 보통 17.7%이었고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4.5% 뿐이었다.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불만은 이전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직원들 중 43.7%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매우 불만족했고, 37.7%로 불만족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여건(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불만도 컸다. 조사 대상 중 29.7%는 만족하지 못했고, 15.4%는 매우 불만족

하다는 평가였다.

학교, 학원, 특수목적고 학령기 자녀 교육여건도 열악해 불만족 37.0%, 보통 28.6% 매우 불만족 21.4% 순이었다.

식당과 술집 중심으로 입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권에 대한 물만도 컸다. 병원과 약국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질문에 40.3%는 불만족했고, 32.4%는 불만을 털어냈다. 교통여건도 나빠 매우 불만족 36.2%, 불만족 33.1%였다.

이와 같은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들은 고작 44.7점만을 줬다.

이에 응답자들은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시설로 의료보건시설 27.4%, 학교교

육시설 12.3%, 도로교통시설 11.2%, 공원시설 2.3% 등을 꼽았다.

또 생활환경 개선 시급한 것은 악취문제 37.8%, 공사장 소음 19.9%, 공사장 분진 18.4% 범죄예방지안유지 12.3%, 상수도 탁수문제 8.9% 등을 지적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명문고 18.5%, 특목고 설립 17.2%, 우수 교사진 확보 14.6%, 광주와 혁신도시간 공동학군제 운영 12.8% 등을 개선 사항으로 내놨다.

김현철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에너지 관련 특성화고와 국제전력대학원 등 전문 고등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현서·오광록기자 chadol@

기아차 K시리즈 500만대 돌파

기아자동차의 대표 세단 모델인 K시리즈가 2009년 출시 이후 8년 만에 글로벌 누적 5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K시리즈는 올해(1~4월) 24만7157대 등 첫 출시 후 지난 달까지 국내에서 92만1947대, 해외에서 410만2067대 등 총 502만4014대가 판매됐다.

해외 판매분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 수출된 물량은 128만66대이며, 282만2001대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팔렸다.

K시리즈는 2009년 11월 처음 출시된 준대형 세단 K7을 비롯해 중국 전략형 모델 K2(2011년 출시), 준중형 세단 K3(2012년 출시), 중국 전략형 모델 K4(2014년 출시), 중형 세단 K5(2010년 출시), 대형 세단 K9(2012년 출시) 등으로 구성됐다.

2009년 5644대가 팔린 K시리즈는 2010년 13만3256대가 판매됐고 2014년에는 역대 최다인 98만3250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팔렸다. K시리즈는 2014년 기아차 전체 판매량의 32.3%를 차지하는 등 최고 인기를 누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5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8 17 24 29 31 3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3,427,542,00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7,125,700
3 5개 숫자일치	1,538,947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



광주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공청회
광주시는 지난 12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떠오르고 있는 레독스흐름전지(RFB) 국가표준 공청회와 함께 시·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랜섬웨어 공격 확산...국내 기업 2곳 감염 신고

변종 등장으로 재확산 우려...보안 패치 수동 설치해야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기업 두 곳도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내 기업 5곳이 랜섬웨어 관련 문의를 해왔고, 이 가운데 두 곳은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랜섬웨어와 관련한 개인들의 문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민간 보안업체와 데이터 복구업체 등을 통

해 접수되는 피해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지사를 둔 국내 회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지를 고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다 보니 정확한 피해 파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랜섬웨어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약 100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병원,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보안이 취약한 윈도우 7 버전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10 버전은 자동으로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윈도우 7 이하 버전은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윈도우 XP 이하 옛 버전을 MS가 보안 업데이트를 중단해 별도 보안 패치를 수동으로 설치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보안 패치는 MS 업데이트 카탈로그 사이트(<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598>)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관심 집중

담양읍 일대 단독·공동주택 1452가구...생활 인프라 자체 구축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담양에 조성되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조감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는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에 127만7173㎡ 규모로 주거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는 ‘국내 최초 단독주택 위주의 명품계획도시’ 개발사업이다.

이 단지는 단독주택 772가구, 공동주택 68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더 높다.

또 기존의 단독주택지와는 달리 수도권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체 주거 인프라시설도 함께 지어질 예정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다. 복합단지 내에는 교육시설, 대형마트·상가·병원 등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소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구축된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메타세쿼이아 길, 소쇄원, 죽녹원 등의 유명 관광지 일대 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사인 담양대솔(주) 관계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민관공동사업 모델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광주시와 가까운 입지, 전국 주요 지역 진출이 용이한 광역 교통망, 도시와 함께 조성되는 자체 인프라 등을 통해 사는 맛이 다른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중 단독주택용지 총 772필지 중 잔여필지인 169필지에 대한 공급에 이어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지, 기반시설 용지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루동 164-8번지(광주 지하철 상무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문의 1600-0616.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23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천국꽃제

2017. 4. 22(토) ~ 5. 21(일)

주제 :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

장소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운봉 바래봉 일원

주최 : 운봉애향회, 운봉읍

후원 : 남원시, 운봉읍 사회(봉사)단체